

지 상 범 석

좋은 말 웃는 얼굴 바른 생각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9)

諸賢頌句 (제현송구) ㉔

宏智禪師示衆 圓覺經疏卷中

高麗新羅諸少年 修行莫待鬚髮斑 호리신분진소년 수행막대빈모반

호리마을의 새 두둑이 모두 소년두둑이니 수행하는데 저승꽃 피기를 기다리지 말고

死生事大宜須覺 地獄天堂等閒 道業未成何所賴 道業미성하소뢰

생사판문이 크니 마땅히 깨달아라 지옥의 시간은 긴 것이니 어찌 등한히 하랴 도업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에 의지하리오

人身一失難尋 前塵無路可尋 前塵無路可尋 十二時中自看奸 前塵無路可尋 十二時中自看奸

사람몸 한번 잃으면 어느때 돌아올까 앞길이 캄캄하고 길머리가 험하다 하루 종일 쉬지않고 자신을 살펴 구할지어다

“사람몸 한번 잃으면 언제 돌아올까 앞길 험하니 쉬지말고 자기 살펴라”

傳法局 前법계

假使頂戴經蓮 身爲末劫過三千 假使頂戴經蓮 身爲末劫過三千

가령 경을 머리에 이고 수억겁이 지나고 몸이 광상이되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해도(몸이 삼천대천세계를 내집 드나들듯 하여도) 만약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면 끝내 이 은혜를 갚을 자 능히 없으리라.

黃髮難留 黃髮難留 黃髮難留 黃髮難留

노쇠의 일에 마음이 묶여 번뇌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보통인이 아니다

不是一番寒徹骨 爭得梅花撲鼻香

龍眼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㉕

雲蓋禪師一夕雨霽 寒月微映 雲蓋禪師一夕雨霽 寒月微映

운개지선사 일석우제 한월 미영

운개지선사가 어느날 저녁 비가 그쳐 밝은 달이 은은히 비칠적에

편안히 방장에 앉아(참선하는데) 북이 두번 울리러 할 즈음에(밤9시~11시 사이)

忽聞砲仗之聲 俄有枷鎖之聲 忽聞砲仗之聲 俄有枷鎖之聲

홀문포구지뢰 아우가제지성 開戶視之 貌不常類 開戶視之 貌不常類

문득 무엇인가 불에 지지고 굽는 냄새가 나고 칼뿔고 사슬 채우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문을 열고 내다보니 물결이 보통것이 아니게

荷槍荷索 極上 火起而復滅 荷槍荷索 極上 火起而復滅

하가대삭 가삼 화기이부멸 立方丈之前 以槌尾 立方丈之前 以槌尾

목에 칼을쓰고 공공류였는데 칼위에선 불길이 솟았다 잦았다 한채로 방장앞 앞에서 칼끝으로

倚於門關 倚於門關 倚於門關 倚於門關

문지방에 버티고 서 있거늘

자선사 가로되 너는 누구이관대 어찌하여 고통이 그리 심한가하였다. 칼손이 이르되 저는

前主當山寺僧也 前主當山寺僧也

전주당산수옹야

전에 이절(이산) 주지였던 수옹입니다.

龍眼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사암과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분주해 집니다. 삼계의 대도시이시고 사쌍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오신날을 일심으로 봉축하는 것은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마땅한 도리라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가 중생이라는 사실 마지막도 부처님의 자혜법문이 있어 알게 된 것이니 부처님의 무상정등정각이 없었다면 캄캄한 암흑 속을 헤메이는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중생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도 부처인 겁니다. 다만 부처의 성품으로 충만한 부처가 아니라 중생의 성품과 부처의 성품을 함께 갖추고 있어 더러는 중생이고 더러는 부처가 되는, 말하자면 덜 익은 부처가 중생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처인 것이 확실하되 중생의 성품이 구름처럼 들어찬 것이 중생인 겁니다. 이 마음속의 중생성품을 비워내고 부처성품을 채우는 것이 부처를 이루는 길,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생의 목숨을 버려서도 오르기 힘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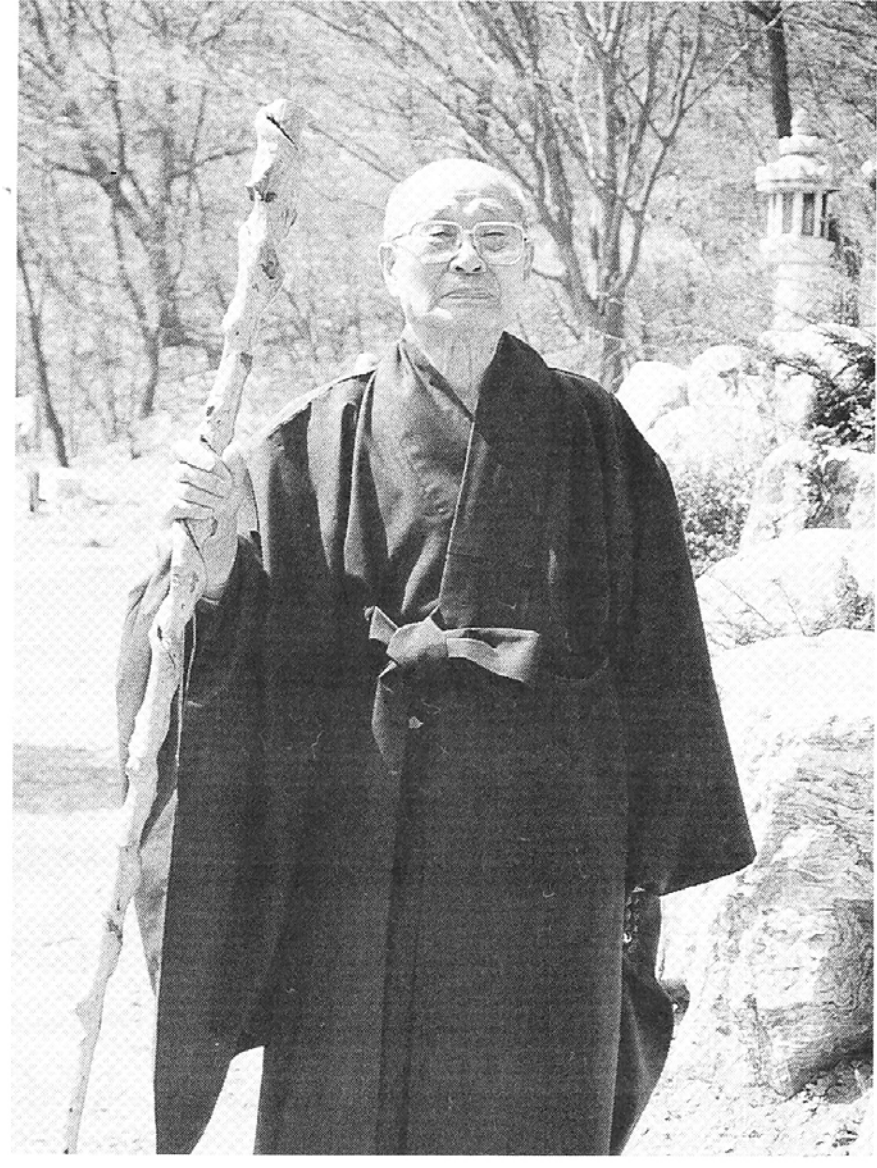
“우리는 중생성품이 구름처럼 가득찬 부처입니다 부처 드러내려면 쉽지는 수행있어야죠”

자리입니다. 훌륭한 계승 한구절을 듣기 위해 목숨마저 기꺼이 던진 선례의 얘기를 비롯한 <본생담>의 이야기들이 암시하듯 수없는 생을 거듭거듭 정진 수행해야 오를 수 있는 지난의 자리가 성불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서둘렀다 욕심낼 것도 아닌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다고 한순간도 게을리 수 없는 것이 또한 수행입니다. 몇점생을 두고 닦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주 앉아 말을 하고 듣는 것이니 이 순간도 중한 수행의 한 바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찬 중생성을 버리는 일이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이 일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것인데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 한발 앞설 수도 있고 뒤질 수도 있었지요. 깨달음의 그 자리는 이르는 시간을 둔 곳도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르고 보면 시간도 공간도 없는 그저 여여한 자리라고 옛조사들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렀다 욕심낼 것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이 있다 했으니 그 예를 들며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성스님 태고종 종정

- 1906년 생
19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월경당 스님을 은사로 득도
31년 중앙 불교전문학교 졸업
일본대학 종교과 사학과 졸업
61년 통국대총장
75년 태고종 총회의장
79년 태고종 제12세 종정취임



길을 가다가 우물거에서 놀던 어린 아이가 발을 잘못 디더 우물에 빠지려 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있었습니까. 달려 갈 것입니다. 아이를 향해 무조건 달려가 아이의 옷자락을 움켜 잡을 것입니다. 그 일촉즉발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 구해주면 사례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걸 생각할 겨를도 없어야 하겠지요. 오직 물에 빠지는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엔 부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1초간의 부처가 된 것이지요. 1초간의 부처를 이룬 사람이 그 1초를 1초에서 잃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다면 그대로 부처가 될 것인데

금방 중생심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1초간 자신이 부처의 성품이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부처의 자리와 중생의 자리를 그렇게 오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중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성품을 오래 지키기 위한 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3초간의 부처를 30초로 늘리고 30초의 부처를 3분의 부처로 늘리고 한 시간의 부처가 되고 하루의 부처가 되고 한달 한해 10년의 부처가 되는 길이 수행을 통해 열린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생에서 다 이루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한 생에서 다 이루었다면 그 역

시 과거세의 가나긴 수행이 있었던 결실이겠지요. 아무튼 이루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임(保任)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중요성이 그 이치입니다. 더러 한 소식을 들었다고 자부하는 수행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입을 열어 부처의 자리에 이르렀노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중생성을 드러내 보였으니 어찌 깨달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젊었을때의 얘긴데, 삼주 근처 어느 선방에서 대각을 이룬 선사가 있다는 소문이 났던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 선승은 햇빛이 없이도 어두운 산을 확확 다니고 자는 것 먹는 것 가리지 않고 무애행을 하

현장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나를 보게 하소서
「염불공부는 바로 참자기(眞我)를 찾는 가장 순수한 참선입니다.」
<청화권스님 머리말 중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많고 많은 죄업중에 가장 큰 죄는 “내가 나를 모르는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방황하고 고통받는 모든 원인 또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무명(無明)에서 생겨 난다고 합니다.
염불은 내가 나를 불러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법입니다.
염불은 내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염불은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중생을 염려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태아령(胎兒靈) 천도를 위한 백일기도(죄업소멸) 봉행
때도는 어린넛들을 위하여
태안지장(胎安地藏)보살을 봉안하고 낙태유산아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서는 셋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고 불쌍한 어린 영혼들의 천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6차 백일기도를 봉행합니다.
태아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셋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 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합니다.
지옥중생을 모두 구원하고자 서원한 지장보살님과 자비의 빛으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큰 자비에 의지하여 삶의 고통과 장애에서 벗어나 공덕의 삶 누리길 기원 합니다.
기도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낙태의 죄업과 구원을 설한
소책자 『태아령 천도공양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정토수행법』
③ 백일기도 자료집 『부처님께 가는 길』
④ 사경과 사물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기도용 『태안지장보살사신』을 우송해 드립니다.
◆일 시 : 불기 2540년 5월 31일 (일재)~8월 28일 (회향)
◆동참회비 : 기도비 (5만원), 영가위패 1인당 (5천원)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연 락 처 : 우)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 전화 : (0694) 52-1755, 53-1755
· 팩스 : (0694) 53-0009
천봉산 대원사
주지 玄藏 합장